

전북권역 대학원격교육 16개 대학 학점 교류 성과

전북대 주관... 4년간 사업 운영 통해 80개 과목 1만여명 학생 참여
42건 공동 스튜디오 구축·개선, 31종의 공동 활용 콘텐츠 개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주관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시작한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사업은 대학 간 원격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시행된 정부 사업이다.
이 사업을 주관해 온 전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센터장 김현경 교수)가 지난 4년간의 사업 운영을 통해 16개 대학이 학점을 교류하고, 80개 과목에 1만여명의 전북지역 학생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올렸다.
전북대를 비롯해 군산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백제예술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우석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대, 전주기전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등 전북권역 16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 기간에 전북권역 대학원격지원센

터는 42건의 공동 활용 스튜디오 구축 및 보수·개선과 공동 활용 콘텐츠 31종을 개발했고, 16개 대학에서 1만여명의 학생이 원격교육의 수혜를 받았다.
오는 4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북대는 전북지역 대학들과 상생발전을 세부 계획으로 내세운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연계해 교육콘텐츠 공유 등 전북지역 대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원격교육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같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워크숍도 지난 1월 22일과 23일 부안에서 개최됐다.
주관대학인 전북대를 비롯한 13개 대학의 센터장과 책임교수, 그리고 업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컨소시엄 대학들의 주요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이화여대 성태제 명예교수(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AI와 빅데이터 기반 시대, 교육의 변화와 원격교육의 발전'이라는 주제의 특강과 (주)에너지사이언스 이영화 대표(차의과학대학 겸임교수)의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색채건강학'이라는 강연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김현경 센터장은 "전북자치도 내 16개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LMS, 스튜디오, 콘텐츠 등을 공동 활용하고,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학점 교류 등 성과를 올렸다"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전북대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 대학들과 교육콘텐츠 공유 등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월 22일과 23일 부안에서 전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전면 재설계하라”

전북교사노조, 무너도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지난 1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장연국 의원은 업무과다로 인한 무너도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교육국장은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로 교사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자치도의회 제406회 임시회에서 교육위

원회 장연국 도의원이 질의한 업무과다로 인한 무너도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계획을 전면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의 16개 업무 중 현재 교사들이 수행중인 업무는 6가지에 불과하며, 나머지 10가지의 업무지원은 교원 업무 정상화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라는 것. 특히 무너도초등학교

와 같은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에서는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는 현장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장학관을 센터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5학년 이하의 초등학교는 교감도, 전담교사도 없기 때문에 소수의 교사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총장배 테니스대회
전북테니스협회 '최우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는 '전북대 총장배 테니스대회'가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최우수대회를 수상했다.
전북테니스협회는 "2023년도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유공자 및 랭킹대회 시상식에서 전북대 총장배 테니스대회에 최우수대회상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대는 이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테니스 동호인에게 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테니스의 저변 확대 등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2023학년도 우수캠프' 시상식

김지환·김수연 학생 '골드챔프' 등극... 인증서 수여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1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2023학년도 우수캠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지환(약학과 6년)과 김수연(한의학과 2년) 학생이 골드챔프에 올라 각각 1,000만원의 장학금과 캠프 인증서를 받았다.
또한 조수아(유아특수교육과 4년) 학생 외 12명이 실버챔프에, 이지연(심리학과 4년) 학생 외 12명이 브론즈챔프를 차지했다.
우석대학교는 2006년부터 재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소양과정 △경쟁력강화과정 △전문화과정 등 3개 과정 12개 활동영역으로 구성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획득한 마일리지에 따라 골드(1,000만원)·실버(360만원)·브론즈(210만원) 등 3단계로 나눠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남천현 총장은 "무엇이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실천해 나간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학기 중 매주 수요일 5·6교시를 'Self-Mapping Day'로 정하고 교육혁신본부와 LINC 3.0 사업단·대학일자리본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학습·모임·힐링 공간으로 '인기'

전주교육문화회관, 청소년 스터디카페 '꿈담'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이 새롭게 조성한 청소년 스터디카페 '꿈담'이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학습, 모임, 힐링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이에 따르면 본관동 4층에 위치한 '꿈담'은 개방형 학습공간, 동아리실(소모임실, 그룹토의실), 휴게실, 힐링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사전 예약 없이 청소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청소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문화회관은 1일부터 '주어의 뽕기둥!'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꿈담 쿠폰'에 방문 시 스탬프를 찍고, 5번째, 10번째 방문 청소년에게 뽕기둥을 돌리는 기회를 제공해 선물을 증정한다.

이현규 관장은 "청소년 스터디카페 '꿈담'이 교육적 소통 공간으로 기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습·힐링 공간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이 본관동 4층에 새롭게 조성한 청소년 스터디카페 '꿈담'이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학습, 모임, 힐링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페 '꿈담'이 교육적 소통 공간으로 기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습·힐링 공간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대비

전북자치도교육청,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 등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수학·영어·정보 과목부터 도입되며, 학년별로는 초등 3~4학년과 중, 그리고 고2가 첫 적용 대상이다.

이어 2026년에는 초등 5~6학년과 중 2, 2027년에는 중3 등에 도입되고, 과목도 2026년 국어·사회·과학·기술 가정, 2027년 역사, 2028년 고교 공통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은 올해 말까지 모든 학생에게 보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교실과 특별실에는 스마트칠판과 무선인터넷망을 추가로 구축해 디지털 교과서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AI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도 AI정보교육중심학교 43개교, 에듀테크 선도학교 3개교, 디지털 선도학교 51개교 등 모두 97개교를 운영한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계속된다. 이미 1월중 교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에듀테크 직무연수를 진행했으며 2월에도 2차, 3차 연수가 이어진다.

이 외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연수 1만9000여명, 전북대 대학원 등 도내 5개 대학에서 진행되는 AI융합교육 전문과정에 260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또한 디지털 교과서 활성화 문화 확산을 위한 에듀테크 멘토링제 운영 학교도 지난해 105개교에서 올해 180개교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듀테크 멘토링제는 에듀테크 능력을 가진 교원(멘토)과 배움을 희망하는 교원(멘티)의 상호 나눔을 통해 멘티 교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11개 시도가 공동 개발하는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플랫폼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 학생의 교수학습데이터를 분석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대시보드'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끝으로 스마트기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교육지원청 평가에 스마트기기 활용률도 반영할 예정이다. 매월 1회 각급 학교의 스마트기기 활용률을 점검하고, 활용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선 미래교육과장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 친체한 교실을 되살리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기반 구축, 교원 전문성 신장,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평생교육원
1학기 수강생 모집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오는 23일까지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간은 3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다. 교육은 일반교양과정과 전문자격과정 등 총117 과정으로 이뤄졌다.

특히 현대인들의 인기과목인 스피치 기법과 리더십, 펀(fun)노래교실 등도 운영한다.

수강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방문(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12 행정실) 또는 전화(220-2642), 인터넷(onedu.j.ac.kr-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으로 하면 된다.

한편 본교 직원 배우자, 혁신도시 이전기관 근무자, 장애인, 65세이상인자, 국가유공자, 동문, 2학기 이상 등록자는 교육비가 감면된다. /장은성 기자



휴먼드림 김모경 대표
교육부장관 표창받아

전주기전대학 LINC3.0 사업단 Health&life care ICC 분야 가족회사인 (주)휴먼드림 김모경 대표가 산학협력 활성화 공로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상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LINC3.0 사업 참여대학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동계 성과 포럼에서 진행됐다.

(주)휴먼드림은 LINC3.0 사업을 통해 △가족회사 협약 △휴먼드림-전주기전대 알포유티티엘스케어경영과 주문식교육과정 운영 △알포유 임상 컨퍼런스 △국제알포유티티엘스케어창업가능대회 △산업체 기술사업화 △우수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기술교류 세미나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주기전대학 LINC3.0 사업단과의 꾸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Health&life care ICC 분야에서의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전주기전대 조덕현 LINC3.0 사업단장은 "LINC3.0사업단과 산업체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ICC 특화 분야인 Health&life care ICC만의 브랜드 창출을 위해 지역 산업체와 상생 협력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